

# “원효, 동아시아 불교계 흐름 선도”

## 국제원효학회 학술회의·번역자 워크숍



원효전서 영역의 의미와 번역상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제2회 국제원효학회 학술회의 및 번역자 워크숍이 12-13일 동국대에서 열렸다. 사진은 13일 번역자 워크숍 모습.

한국 불교의 대표적 사상가인 원효(617-686) 스님의 현존 저술 23종을 영어로 번역하는 <원효전서> 영역 사업이 회향을 앞두고 있다. 원효 사상의 세계화를 위해 97년 동국대와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원효학회는 내년 2월 <금강삼매경론>을 번역한 제2권과 <무량수경중요> <유심안락도> 등을 담은 제5권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1-2권의, 모두 5권의 영문판 <원효전서>를 발

행할 예정이다.

12-13일 동국대에서 열린 제2회 국제원효학회 학술회의 및 번역자 워크숍은 지난 5년여 동안의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는 자리. 박성배(뉴욕주립대), 로버트 버스웰(UCLA, 루이스 랭카스터(버클리대) 조성택(고려대) 윤원철(서울대) 김용표(동국대) 교수 등 번역에 참여한 국내·외 한국 불교 연구자와 국내 불교학자들은 <원효전서> 영역본 출간의 의미를 모색하고 번역

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벌였다.

첫날 주제 발표를 한 버스웰 교수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통찰력이 여러 가지 지식적 저술을 통해 이뤄졌던 당시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에서 원효는 불교학문에 대한 탁월한 주석가였다”고 원효를 평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성택 교수 역시 “<원효전서> 영역을 통해 동아시아 불교사상사 속에서 원효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

예규’가 될 수 있고, 번역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어려움은 <원효전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택 교수는 7세기 불교 학문으로 적힌 원효의 저술을 현대 영어로 번역할 때 생길 수 있는 ‘언어적 문제’를 우선 들었다. 함축적이고 다의적인 한문을 분석적이고 실재적인 언어인 영어로 번역할 때 어떤 용어로 번역할지가 결정될 수 있다.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김용표 교수는 “9차례의 번역자 워크숍을 거치면서도 학자들 간에 특정 용어의 번역을 놓고 의견이 많아 통일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대승기신론소 회본>을 번역한 박성배 교수는 동일한 경전에 대해 전하는 판본이

### 영역 원효전서 번역 예규로 자리매김 될 수도

### 저본으로 삼는 판본에 대한 연구도 병행돼야

가 됐다”며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독창적 사상가라는 면보다는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의 흐름을 앞서 읽어내며 다른 학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박학다식한 면이 먼저 강조되어야 한다는 게 번역에 참여했던 서양학자들의 한결같은 말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원효전서> 영역의 문제점을 다룬 번역자 워크숍이었다. <한국불교전서> 전체를 영역할 계획을 갖고 있는 국내 불교학계로서 <원효전서> 영역이 하나의 ‘번역

여러 가지일 경우 어떤 판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할 것인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용표 교수는 ‘<대도경중요>의 경우 원효가 구마라집의 번역본에 주석을 던 것인지, 현장본에 대한 주석 서인지, 텍스트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버스웰 교수가 첫날 주제발표에서 밝혔듯 원효 저술의 전래에 일관되게 흐르는 논리 구조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도 뒤 여겨야 할 과제이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n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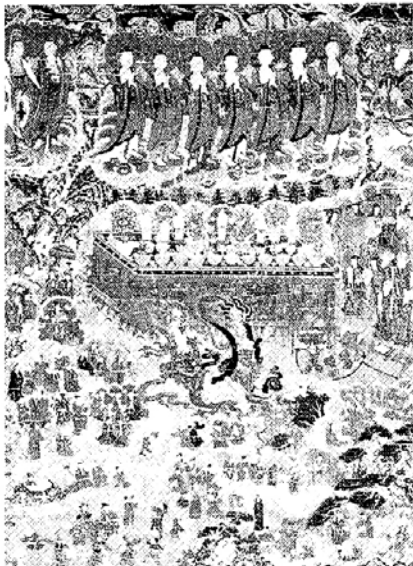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8)

### 지옥에서 극락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사람인 목련존자(目連尊者)는 호심이 지극한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시에 죄를 많이 지은 탓에 아귀지옥에 떨어져 굶주리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정성을 다하여 공양을 올려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아귀보를 벗어 화락천(化樂天)에 태어나 무량보락을 받았다. 이 고사에 따라 음력 7월 15일 백중날, 안거가 끝나는 스님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하여 죄를 짓고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고 있는 조상들의 혼

에서 극락으로 회생할 수 있는 극적인 기적도 보여준다. 지옥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옥도라 하지 않고 달콤한 이슬을 뜻하는 감로도라 부른 까닭은 이 그림 속의 현실 같은 지옥 또는 지옥 같은 현실이 극락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제든지 극락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고이기 때문에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다. 특히 하단에는 여러 현실장면이 그려지는데 이를 통해 불화를 제작한 당시의 풍속과 풍속표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 불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동서삼감로도(1759년, 호암미술관 소장). 화려함 속에 지옥에서 극락으로 가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1759년에 제작된 동서삼감로도를 보면, 하단에는 지옥과 지옥 같은 현실생활이 펼쳐져 있고, 중단에는 두 아귀들을 중심으로 천도의식을 베풀고 있다. 하단과 중단 사이에는 나무 총총한 산들로 구분되어 있다. 그 위 상단에는 극락으로 인도하는 7불이 즐지어 있고, 그 좌우에 인로보살과 관음보살이 거느리고 있다. 하단의 인물들은 삶의 고통과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에 빠져 죽고, 호랑이에 물려 죽고, 맞아 죽고, 전쟁 중에 죽는 등 아비규환이다. 특히 인물들의 눈초리에는 근심과

### 감로도에 지옥·천도의식·극락 함께

### “언제든 천계갈 수 있다” 희망 담겨

백을 구하는 의식을 행한다. 농부들은 경계의 빛이 가득하다. 심지어 소의 눈빛에도 경계심이 담겨 있다. 서로 믿지 못하는 험악한 세상을 눈초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생계가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불화는 워낙 화려하고 밝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전반에 불기 시작한 장식성이 화면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적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룬 가운데 장면과 장면 사이를 구분하고 있는 삼색 구름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이 불화 속의 지옥은 이미 극락에 닿아 있는 것이다.

백을 구하는 의식을 행한다. 농부들은 경계의 빛이 가득하다. 심지어 소의 눈빛에도 경계심이 담겨 있다. 서로 믿지 못하는 험악한 세상을 눈초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생계가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불화는 워낙 화려하고 밝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전반에 불기 시작한 장식성이 화면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적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룬 가운데 장면과 장면 사이를 구분하고 있는 삼색 구름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이 불화 속의 지옥은 이미 극락에 닿아 있는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 “육류소비자 살생 공동책임”

슈미트하우젠 교수, 인도철학회 국제학술대회서



불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오계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계는 ‘모든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이다. 이 말은 곧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하라는 뜻일까?

18-19일 열린 인도철학회(회장 김선근) 국제학술발표대회에서 ‘불교의 관점에서

물들이 승려를 위해 특별히 도살되었다고 보고 듣지 않았을 때, 또는 그렇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 승려도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됐다. 동물을 포함해 모든 유정이 불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대승경전이 성립하면서 육식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윤리적 견지에서 볼 때 훨씬 중요한 것은, 고기의 소비가 필연적으로 공급을 부추기고 따라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물의 살해

## 종교다원주의 특성은 개방성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발표회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는) 9일 ‘불교와 다원주의’를 주제로 추계 학술발표대회를 열었다. 회장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은 “다른 종교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포괄주의의 단계까지는 이른 것 같지만 아직도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개념조차 잡혀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웃종교와 공존 문제를 불교적 시각으로 접근해 보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번째 기조강연에 나선 기무라 기요타카 일본 츠틀미 대학 교수는 “연기관에서 보면 ‘근원(元)’이라는 인식이나 ‘-주의’라는 입장이 없기 때문에 불교는 가치로서의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로 불교 내에는 다원주의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철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교는 다종교사회에서 생길

### 불교의 ‘자기부정’ 원리가 공존해법

기조 강연을 맡은 윤이훈(서울대) 교수는 “종교다원주의는 특정한 종교적 이념이나 가치관에 입각한 가치중립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한 사회에 공존하는 현실(즉 다종교 상황)을 기술하는 용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자신의 절대신념체계를 지키면서 타인의 절대신념을 방해하지 않는 개방적 태도가 종교다원주의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수 있는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줄 수 있는가? 윤이훈(동국대) 교수는 “불교의 ‘자기 부정’의 원리야말로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열려 있는, 진정한 다원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이훈 교수는 “부정의 논리가 개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최종의 진리는 불교라는, 포괄주의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 대승경전 생김 후(AD400년) ‘채식주의’ 등장

본 채식주의’를 발표한 세계적인 유식학자 슈미트하우젠(독일 함부르크 대학·사건 교수)에 따르면, 불교에서 채식주의가 등장한 것은 서기 400년 무렵 <대반열반경> <능가경> 등 대승경전이 출현하면서부터다. 고기와 어류를 5종의 기본 음식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초기불교 시대에 육식은 반드시 금지의 대상이 아니었다. 동

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살해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 <능가경>의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도살되는 과정의 고통뿐 아니라 현대의 사육 방식 때문에 살아 있는 내내 겪어야 할 고통도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듯 동물을 비롯한 모든 유정은 괴롭힘과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불교의 윤리와 배치된다.

##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수혈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주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전류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스님의 예불독경 CD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대구해인선원을 방문하시어 칠보 삼존불도 친견하시고 무료CD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법회 안내

- ▷ 매일 음력 18일 - 지장재일법회
- ▷ 화요일 오후 2시, 7시 - 기조교리반
- ▷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 참선반
- ▷ 일요일 오전 10시 - 금강경반



해인선원은 불교중앙복지연구원 건립을 위해 안분자 안경 봉사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불거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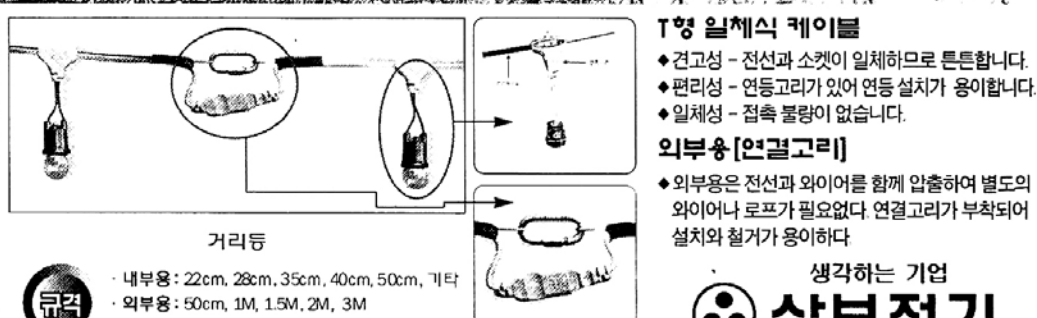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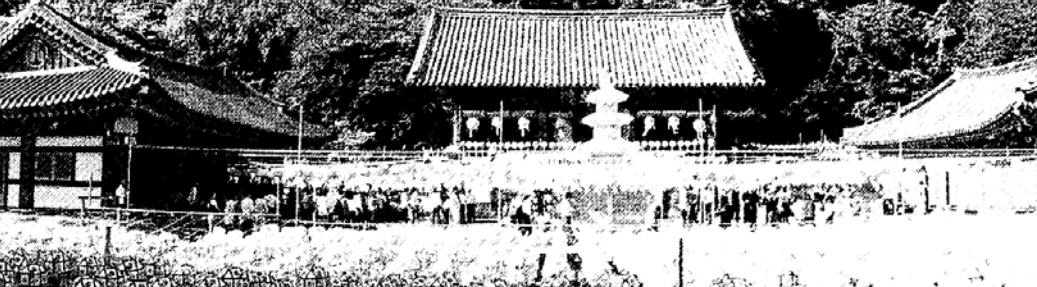
(국민은행: 682-0251-628 / 예금주: 해인선원)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352-9 ☎ 053)741-8788

해인사 말사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 합장

## 삼보전기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T형 일체식 케이블  
◆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 편리성 - 연동고리가 있어 연동 설치가 용이합니다.  
◆ 일체성 - 접촉 불량 없습니다.

외부용 [연결고리]  
◆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축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